

시설아동의 삶(현상학적 접근)

김 귀 분* · 김 미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부모·형제 등 가족간의 긴밀한 인간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동은 그의 대인관계의 기술을 터득해 가면서 성장한다.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대인관계에 의한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행동경향을 야기할 수도 있다(Lambert, 1999).

시설아동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연구들은 주로 시설보호 아동의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유미숙, 1980; 이성환, 1982; 장병합, 1982; 신현덕, 1986; 이정희, 1988; 고동좌, 1992; 신은주, 1995)가 대부분으로서, 이 선행 연구들은 시설아동의 성격에 대하여 주로 부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정신건강을 비교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발표되어(유미애, 1999) 이들의 정신건강을 비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그러한 차이를 불러일으킨 원인적 혹은 환경적 요인이 되는 시설아동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질적 연구는 고동좌(1992)의 부분적인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도 매우 드문 실태이다.

종래의 시설기능은 전쟁이나 기아로 인한 아동에 대하여

가족기능을 대체하는 단순한 생활보호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근래에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입소가 증가하고 있어서 점차 치료, 회복, 재활 등 전문적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시설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김용택, 1992). 시설의 기능이 이와같이 변함에 따라 전문적 자격을 갖춘 간호사의 간호중재 역할변화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는 시설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른 건강 간호에 많은 한계를 노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위적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부모로부터 받았어야 할 정서적, 심리적 삶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 부모로부터 부정적 삶을 체험한 아동들의 경험을 알아봄으로써, 시설아동에 대한 적절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라고 하겠다. 또한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정서장애의 상태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교정적, 치료적 개입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악화되거나 또다른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삶의 체험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관점보다는 아동 개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 생생한 체험은 아동이 일괄적이고 강요적인 자활프로그램으로부터 스스로 흥미를 갖고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 동강대학 간호과 조교수

리게 되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으로 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아동수용시설에 있는 아동의 일상적 삶의 체험과 관련한 생생한 경험을 근원적으로 규명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시설아동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거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깊이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삶의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상호중재의 이론구축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를 확인한다.
- 2)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에 대하여 그 구조를 기술한다.
- 3)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 중심의 상호중재 방안을 모색한다.

II. 문헌 고찰

1. 가족과 아동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1차적 집단으로서, 최초의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가정의 일원이다. 상호이론에서는 가족에 대하여 Orem은 개인의 중요한 환경으로, Rogers는 개인의 총체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인간 에너지의 장(場)으로, Roy는 적응체계와 하부체계로, King은 사회구조와 깊이 연결된 대인관계의 조직으로 보고 있다(조결자 외, 1998).

가족 내에서도 아동의 역할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이며, 인간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지적, 정서적 태도를 갖추게 된다(유은진, 1987; 김진수, 1990; 배숙진, 1998). 즉, 아동의 많은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워졌느냐 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senthal, 1999).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동 시절을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체험을 경험한 후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에게 있어 삶의 체험은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Lambert의 부모·교사·또래집단·아동들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아동 관계'는 아동의 퇴행적 태도(withdrawn behavior), 공격적 태도(aggresive behavior), 고독감(loneliness) 등과 매우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와 같은 관계를 '교사·또래집단-아동 관계'가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접한 '교사-아동 관계'는 '부모-아동 관계'가 소원한 아동의 현재의 외연적 태도(present externalizing behavior)를 보호·방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밀접한 '또래-아동 관계'가 그러한 외연적 태도에 대하여 보호·방어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반면에 또래와의 부정적 관계는 특히 '부모-아동 관계'가 소원하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아동의 외연적 행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mbert, 1999).

뿐만 아니라 Rose는 아동의 삶의 목표는 첫째 좋은 친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둘째 실제 생활에서의 좋은 친구와의 우정의 질(the quality of their real-life best friendship)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Rose, 1999). 나아가서 Pierces는 어린 시절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가족의 해체가 청소년기의 외연적 태도(concurrent externalizing behavior)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어린 시절의 지지와 해체 경험이 청소년기의 외연적 행동을 예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하고 있다(Pierce, 1999)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부모에 의한 역할교육보다는 또래집단이나 시설내 형과 언니들에 의한 역할교육이 주종을 이루는 시설아동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가족의 의미는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것이며, 또한 가족이 없이 지내온 시설에서의 그 동안의 체험은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18세 이후의 태도를 예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현상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시설아동의 삶의 특성

1) 시설아동의 현황

현재 아동복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196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되고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00. 1.12에 전면개정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현황을 <표 1>을 통해 보면, 1980년 이래로 1996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IMF가 시작되던 1997년과 가정체제 및 아동유기 등으로 이어진 1998년 및 1999년 사이에 영아시

<표 1>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현황(명)

시설종류\연도		1980	1990	1996	1997	1998	1999
종전	현재						
영아	아동양육	2,477	2,388	1,575	1,589	1,856	2,017
육아	아동양육	20,908	20,147	14,342	13,873	14,397	14,408
아동일시	아동일시	-	-	609	638	520	425
교호	아동보호치료	-	-	462	393	509	436
아동직업보도	아동직업훈련	1,246	444	250	245	152	180
자립지원	자립지원	48,351	471	196	198	214	214
아동복지시설		78,982	23,450	17,434	16,936	17,648	17,68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0.

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 및 부칙 제4조(2000.7.27)

설 267명, 육아시설에 524명의 아동이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99년에 육아시설의 아동이 전년도에 비하여 55명 감소하였으나 3세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던 영아시설의 아동이 161명 증가함으로써, 이들 영아시설¹⁾과 육아시설²⁾을 통합한 현행 법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은 성별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고,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유치원생-고등학생-중학생-기타-대학생 순으로 저연령 아동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릴 때부터 가정생활의 박탈로 인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한국복지연구원, 2000).

2) 시설아동의 삶의 일반적 특성

우리 나라의 아동양육시설³⁾에 수용된 아동들의 하루 일과는 비록 개별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사하다. 평일 기준으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아침 식사와 청소를 마치고 등교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4시 30분 혹은 5시경에 귀가하여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 시간은 TV시청, 축구나 농구 혹은 어울려 노는 것으로 하루를 마친다. 시설에 따라 아침식사 직전이나 저녁식사 직후에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에는 공부시간과 같은 계획된 일과가 없다. 수용아동들은 가정 집 아동들과는 달리 부여된 학교 숙제 외에는 시설내에서 학습이나 문제집을 공부하지 않으며, 공부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요구가 거의 없으므로 예배나 청소와 같은 일과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울려 노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러므로 원장이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직접 교육받는 단체생활에서의 예절과 인사법 등을 제

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을 시설내의 형과 언니들로부터 전수받게 된다. 즉, 가정 집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역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시설아동은 거의 대부분을 동일 시설내 선배 아동들로부터 역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된 역할교육을 받은 시설아동의 태도나 정신건강 등에 대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를 보면, 시설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서 첫째 정신건강 상태에 있어 시설아동이 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보고(Wolf 외, 1995)가 있고, 둘째 지적활동·정서적 안정감·사회적응력에서 시설아동이 뒤떨어진다는 보고(노태화, 1974; 이영희, 1975; 유미숙, 1980)가 있으며, 셋째 시설보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Bowlby, 1980; Belsky, 1994; Rutter, 1995)가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견해로서, 첫째 시설보호 그 자체의 효과에 대하여 아동의 입소연령이나 재원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견해(최일경, 1996; 유미애, 1999)도 있고, 둘째 오히려 일반 아동이 더 문제가 많다는 보고(최일경, 1996)나 혹은 시설아동이 문제가 더 많기는 하되 일반아동과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보고(유미애, 1999)도 있으며, 셋째 가족이나 친척과의 접촉 여부가 시설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최일경, 1996)가 있으며, 넷째 시설보호 자체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보고(유미애, 1999)도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견해만이 일방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1)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영아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 수용시설이었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육아시설은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수용시설이었다.
 3) 수용된 아동들은 수용시설을 “우리 집”이라고 부른다.

것 같다. 선행연구들이 이렇게 상이한 결과를 낸 것은 표본추출 방법과 연구방법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객관화된 사실에 대한 계량적 연구에 못지 않게 그 심층에 있는 아동의 삶의 체험을 생생하게 현상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Ⅲ. 연구 방법 및 연구 설계

1. 연구방법에 대한 정당화

경험에 참여하는 인간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고 간호에 내재하는 과학성과 인본주의간의 상호의존성을 포착(Parse et al., 1985)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현상학적 접근은 간호와 같은 인본주의적 학문의 가치와 믿음에 일치되며(Beck, 1994), 간호실무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관심의 특성을 묘사하는 개념을 연구하는데 적합할 것(Munhall, Oiler, 1986; Omery, 1983)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간호학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본질, 환경의 본질 및 인간과 환경간의 사회적 작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므로(Cavanagh, 1999: 75-96),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삶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살아온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건강문제와 건강증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인을 통해 미래연구의 방향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3개의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고등학교 2~3학년의 여자 아동 5명이다. 예비연구(Pilot study)에서 초등학교 5학년 1명, 중학교 2학년 1명, 중학교 3학년 1명, 고등학교 2학년 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들과의 면담 결과 비교적 고등학교 2학년 아동이 자기 의사표현에 가장 익숙했으며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체험을 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연구자 훈련 과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참여자의 생생한 삶의 체험을 연구, 기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중면접과 비형식적인 개방형 질문이 사용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훈련을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기존의 질적 간호연구 및 비간호학 분야의 연구를 숙지하였고, 질적 간호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관련 논문을 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출신 교수와의 지속적인 담론을 통하여 학문적 성숙을 도모하였다. 특히, 예비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와의 담론이 이들 아동과의 라포(rapport) 형성에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4. 연구기법 및 절차

연구는 2001년 3월 초부터 2001년 9월 말까지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었다. 참여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의 경험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볼 때, 시설 내에서나 시설과 가까운 곳에서의 면담은 자유스런 분위기 조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취향에 따라 연구자의 집이나 공원 및 연구실을 이용하였다.

집중면담을 하면서 비형식적인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되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직접 질문보다는 “그래? 그래서 어땠어? 그건 무슨 뜻이지?” 등 참여자의 경험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면담 기록은 참여자의 양해를 구하여 녹음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일기를 보여주거나 스스로 기록을 해주기도 하였다. 면담 내용 중 애매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면담시에 다시 질문함으로써 그 이전 질문과의 일관성이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1회의 면담에 걸린 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명당 면담 횟수는 7~9회이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Amadeo Giorgi(1985)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참여자의 진술을 기록에 옮긴 후 기술문에 대하여 어떤 비평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여러번 반복하여 읽고 참여자의 마음을 생각한다.
- 2) 애매한 기술에는 대하여 다음 면담 기회에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그 정확한 의미를 확인 받는다.
- 3) 참여자가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진술의 단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어휘이지만 유사한 의미의 단위를 규명한다.
- 4) 의미의 단위들로부터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주제를 규명한다.
- 5)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언어로 구현된 참여자의 경험이 의미하는 중심 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한다.
- 6) 중심 의미를 통합하여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생생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기술을 구성한다.

7) 각각의 상황적 기술문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생생한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기술을 구성한다.

6.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여 참여자와의 면담을 위한 출입 및 참여자의 외출을 승인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 내용에 대하여 녹음을 하되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위한 것이므로 연구목적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녹음 테이프를 되돌려줄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후에는 기록 및 녹음테이프를 소각할 것을 약속하였고, 본명이나 시설명과 같은 신상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IV. 연구 결과와 논의

1.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

1) 사례의 일반적 특징

사례1: 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출생 직후 길거리에서 버려져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영아일시보호소에 옮겨진 후, 3세 때 현재 시설로 입소하였다. 현재 엄마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며 주위에 친척이나 가까이하는 사람도 없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도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라는 기대감에 살았다고 한다. 엄마가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서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고 '고아원에 사는 아이'라는 팻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한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여려고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직하여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본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본인은 지금의 처지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례2: 정○○,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7세 때 언니와 함께 현재 시설에 입소하게 됨.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던 중에 교회 목사님께서 외할아버지가 힘든시디면서 현재 시설을 소개해 주셨다고 한다. 시설에 가기 싫어서 마루바닥 밑에 숨기도 했으나 외할아버지와 이모에게

끌려가다시피 시설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하도 많이 울자 이모가 10일 밤만 자고 나면 데리러 온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시설에 살게 되었다.

현재 엄마, 아버지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이 안되고, 외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며 언니와 함께 시설에 살고 있다.

사례3: 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태어나자마자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졌으며, 3세 때 현재 시설로 입소함. 엄마와 아버지는 전혀 모르며 친척도 전혀 없다.

영아일시보호소에 들어올 때 아버지는 수배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는 이름도 모르고 엄마에 대한 정감도 전혀 없어서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에 엄마가 찾아오면 왜 나를 시설로 보냈는지 아버지랑 연락은 되시는지, 낙태시키지 않아서 고맙다고 해야 할런지... 등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사례4: 안○○,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인천에서 태어난 후 몇 개월 되지 않아 서울 외숙모집에서 몇 달, 안산 외숙모택에서 몇 달 사는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남동생을 어디서 데려온 후 엄마가 아버지 몰래 도망을 갔다고 한다.

그 후 시골로 내려와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살게 되었다. 어느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싸움이 벌어졌는데 큰아버지, 삼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마당으로 끌고가 밧줄로 꼬박 묶어놓고 소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그 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타하여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몇 년 뒤 아버지가 동생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시설에 입소시켰다.

현재 ○○는 시설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방학 때는 엄마 집에 가서 3일 정도씩 있다가 온다(시설에서 부모방문에 대해 1주일 이내로 한정하기 때문). 퇴소 후에 엄마와 살 것을 생각하면 기쁘다고 한다.

사례5: 임○○,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의 매일 계속되는 구타로 인해 엄마는 ○○가 5세 때 집을 나갔고 할머니, 아버지, 오빠와 함께 영세민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를 구타하고 ○○에게 칼을 던지기도 하는 등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아파트 주민의 권유로 시설에 입소하게되었다. 시설에서도 언니들에게 구타를 당하자 아

버지의 악몽이 되살아나 죽고 싶었다고 한다.

현재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있으며, 오빠는 가끔 만나는 정도다. 엄마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사는데 전화로 가끔 연락을 하고 있고, 방학 때는 3일 정도 엄마와 지낸다.

2) 의미의 분석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한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시설관행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거부감, 잘못된 편견에 대한 억울한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연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이 삶의 의미를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적 구조적 기술

중심의미	주 제	원 자 료
시설관행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	강압적 환경에 대한 고통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보육사)랑 자주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 그냥 이모 보면 화가 나오. · 글고 칭찬 같은 거 잘 안 해줘요. · 이모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면 애들 모두다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 아무튼 여기 생활은 강자가 약자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미움 받죠... · 이모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매 맞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방 식구들에게 언니(시설내)가 폭력을 쓸 때 그때 제일 나가고 싶었고 집에 들어가는게 무서웠어요. · 매 맞다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억울해서 집을 나와서 막 울었어요 · 옛날에는... 고3(시설내 언니들)되면 쳐다만 봐도 때렸어요. · 언제쯤 안 맞고 살까 하는 생각에... 전 항상 맞고 살았어요. · 정말 맞으면서 전 '내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승처럼 맞았거든요, 설마 짐승이라도 이렇게 맨날 때릴까? · 맞는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루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자신에 대한 포기	기다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랑은 지금 살던 곳이 기숙사인줄 알았다. · 내가 학교에 갈 때까지는 찾아오겠지 했지만,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 하면서 · 이모가 10밤 자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있었죠. · 뒤늦게 깨닫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시설)를 나와서 무작정 걸었어요.
	자신에 대한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더욱 살기가 싫었다. ·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 죽고 싶은 생각도 해보고, 가출하고 싶은 생각도 해보고 ·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나의 모습을 버렸죠. 담배까지 피우고, 술도 전보다 많이 마셨죠. · 술 마시자, 술 마시면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니까... 서로 쌓인 게 있으면 풀자는 식으로... ·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도망쳐 나가고 싶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거부감	수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사는 나를 숨기기에 바쁘고... · 애들이 시설에 사는 것 알면 어쩌나 해서 얼마나 마음 졸랐는지... · 우리 집의 다른 애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다른 학교를 지원했죠. · 결혼할 때 제일 힘든 문제가 부모님에 대한 것이래요. ·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이면 저는 어느새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알면은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힘이 들어요.
	굶주림에 대한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고플 때 몰 마시면서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여기서 안 살았을텐데... · 김치를 피다 먹을 때 일하는 이준마가 알면서도 눈감아줘서... · 난 젊어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꾸미고 싶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 명절 되면요, 부모님 없는 애들은 남아서 보물찾기(먹을 것) 했어요. · (보물찾아 먹을 것이 나왔을때)우리한테는 완전히 복이잖아요. · 어릴 때는 먹는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잘못된 편견에 대한 억울한 마음	출생에 대한 의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보고 싶어하는데 (엄마, 아빠)원망은 하지 않아요. · 떨어져 있는 동안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며 살았는지, 한번이라도 보고싶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 저랑 언니랑 친 자매 맞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요 · 내 자신도 왜 나를 기억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눈으로 봐줬으면 한다. · '시설에서 살아서 뭐 불쌍하다' 하는 그런 시선들 정말 싫다. ·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 우리도 다른 애들과 틀린 것 없는데 · 내가 다르게 있다면 어렸을 때 가족하고 떨어져서 산 거 뿐인데...

중심이미	주 제	원 자 료
잘못된 편견에 대한 억울한 마음	무시 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 있어도 무시 당할거 뻔하니까, 말 안하는게 오히려 더 속이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 꼭 우리들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애들 취급을 하는거 같아서.. · 여전히 시설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놀람감이 되었다. ·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시설 아이들은 도둑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시설에 산다면 이상하게 보고 거의 도둑으로 보니까 학교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 말을 하면 믿어주지도 않을거 같아서 말하기가 두려웠다.
	속내를 숨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젠가 집에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곤 했다. · 학교에서는 말이 없다. · 집에서조차 그러면 내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아서.. 집에서 나가 내 자신이 이렇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잇고 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니에게 맞는 일과 할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이별 이런 것을 잇고 싶어요 · 친구들 중에 제게 말해도 될만한 친구들에게는 털어 놓으려고요 · 힘이 들 때는 춤을 추면서 잊어버려요. ·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적에 춤을 춰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	친구와 어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끼리 있으니 내 맘이 편하고 애들도 들어줄 상대도 많고 · 친구들과하고 노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 그냥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야기하고.. · 친구 만나면 카페나 노래방 호프집..
	자신을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산다는 것 그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거 같아요. · 언니가 시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하게 되었어요. · 자기네도 (부모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고아될건디.. · 그래가지고 형편이 다 거기서 거기니깐 뭐 별로 그런 말 안해요. 저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교생 중에 5명이나 되니깐..
	믿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란 역시 간사하고 믿음만한 존재가 못되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친구에게서 신뢰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개를 못 믿었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다가가기 힘든데 먼저 다가와 주시면 꼭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거 같고 편해요. ·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거 그게 좋아요. ·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된 일에 화도 내고 충고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 정말 살기 싫어요. 너무 화가 나요.
	눈치를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매일 기대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다. 이런게 싫다 · 이곳 시설이 싫어서 나왔는데... 며칠 밖에서 생활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왕따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원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 찍힐까봐 · 찍힌 애들은 그래서 암전히 살자라는 죄우명을 갖고 있어요 · 지금은 집(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면서도 알아 맞출 정도이다 · 왕따가 되기 싫고 친구들이 내 곁은 떠나갈까 봐서요 · 소문이 나면 내가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 왕따 당하면 어쩌나.. · 친구들이 안 놀아 주면 어쩌나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 사람관계가 이렇게 힘든 것 인줄 정말 몰랐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염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가면 자기 소개서에 성장과정을 써야되고 많이 물어보는데... 흠(한숨) · 막상 면접결과가 나오면 다 떨어지는 것 · 나랑 같이 가는 애는 나보다 말도 못하고, 자격증도 적는데 내가 떨어지면 진짜 어이없이 떨어지는 것 같고 · 나를 못 믿고 아직도 사회가 우릴 거부하는지 · 그래서 혼자서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애들한테 내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이불을 입에 꼭 물고... 너무 너무 마음 아팠다. 성인이 되면 누구한테 가야하나...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 앞으로의 내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내 앞으로가 많이 걱정된다. · 나가면 어떻게 집을 사나... 또 생활비는 어떻게... 이런 걱정들. · 앞으로 닥칠 멀고도 험난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지치고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을까? 그 때 나 혼자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인거 같다. ·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글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했으면...

중심의미	주 제	원 자 료
	소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당할 때 그럴 때 진짜 서럽고, 다시는 이런 일 안 당해야지 하는 생각 · 이모가 아이들에게 나랑 놀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때릴 때, 선생님이 차별하실 때, 시설에 산다고 같이 안 놀아 줄 때 소외감 느끼죠.
	원망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모님들을 원망했어요. 왜 날 버리고 갔어요 하면서. ·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텐데...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안 살고 있을텐데 하면서... 이런 ○○이(시설내 친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막 답답하고 한숨만 폭폭 나오고...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때 난 혼자구나,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방에 있는 애들이 밍고 싫었다. 여길 나가고 싶다. · “넌 엄마가 없으니 따로 놀아라”라는 말을 들어 세상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 학교에 혼자 가고... · 엄마없는 아이, 고아원에 사는 아이라는 핏말이 나를 늘 따라 다녔으니깐. 핏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 많이 받고 살았지요.
	서글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 끄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그때부터 전 어두운걸 싫어하게 됐죠. · 불 끄고 있으면 식은 땀 흘리고 무섭고, 경직된 자세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연민	가죽에 대한 그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자매 둘만 남기고 할아버지마저 데리고 가시니 너무나 화가 났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한없이 울기만 했다. · 옥상에 올라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한없이 울었다. · 어렸을 적에 우리 집(시설)에서 맞을 때, 침엔 아파서 울었지만 나중엔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죠 · 명절 때 세뱃돈 줄 때, 또 그 뒤지... 졸업식 같은거, 그럴 때... ·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맞을 때, 용돈이 부족할 때 부모가 보고 싶다.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 이거 하라하면 이거하고 저거 하라하면 저거하고... 나도 인간인데... · 정말 한심하다. 나라는 존재는 없는거 같다.
	소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곳에 와서 매일 하늘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 어린 마음에 하늘에 있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하늘을 향해 다짐을 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디어 낼 거라고.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한 뉘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고 싶었거든요. 그게 나의 방어가 되었으니깐요. · 거기 있는 애들 앞에서 늘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 절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쉽게 보이면 분명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날 쉽게 대할 테니까... · 절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더 나은 ○○이가 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 · 다짐을 했다. 예전의 나는 죽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자. 초등학교 시절 ○○이는 죽었고 중학생이 되어 새로이 시작을 했다. ·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 걷 깨닫고 나는 울었다. 그리고 다짐을 했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 이 책처럼 산다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 질거라는 생각을 해요 · 내가 죽는다고 이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죽어봤자 슬퍼할 사람은 오직 한사람 언니에게 평생의 짐을 주기 싫어서 다시 돌아왔다. · 예전에는 내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자신을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기고 싶어도 그냥 거기 산다고 말한다. · 같은 반이어서 인제 애들 다 아니까 그런거 별로 없고.... ·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때 다 말했어요. · 그래서 병문안 오면 애들 다 알고.
미래에 대한 도전	목표를 향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하면 그 결과는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될 것 같아요. · 내 꿈을 이룬다는 것 그것 하나에 나의 희망을 건다. · 나에게 진 빛 그리고 할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산다. · 나도 꼭 내 분야에서는 남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 3001년 1월 1일 꼭 2억을 벌 것이다. ·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가질 거다. ·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길 때는 내가 받았던 도움, 배려...다시 다 베풀어 줄 거다. · 내 꿈은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것이다. · 글고 소년 소녀 가장들도 돕고싶다
	상대적 행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보다 더 어려운 애들을 생각해요, 장애인이나.. · 사람들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는 모습들을 주로 생각해봐요. · 뉴스보면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 차라리 엄마 아빠없이 편하게 지낸게 더 낫다 그런 생각 들어요. · 나보다 더 못한 애들도 많고 부잣집 애들이라고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거 아니기 때문이다. · 저는 그 애들보다 이젠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것과...

첫째, 시설아동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미는 “시설관행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강압적인 시설관행에 대한 고통스러움, 매 맞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 등 2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집단생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기 마련이다. 집단생활에서의 이러한 제약은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들 목표들을 상위목표로 융합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에 대한 가족적인 안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복지법인의 수용목표와 피수용자인 아동의 개인적 희망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집단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한다”가 가장 큰 불편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은주,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집단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모(보육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압적인 시설관행에 대하여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단체로 거의 매일 매를 맞아야 했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이들은 시설을 벗어나 하염없이 걸어 다녔던 때도 있고 매 맞는 자신이 짐승 같다고 서러워하기도 했던 기억 속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다림, 자신에 대한 포기, 수치심, 굶주림에 대한 슬픔, 출생에 대한 의구심 등 5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가올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살아 있기 때문이고, 기다리는 당사자에게는 그 기다림이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근거와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다가올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면 기다리는 현재의 삶이 다소 무기력해 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하물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그 부모와의 재회가 한낱 꿈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어린 아동들의 체념은 더욱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낳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부모에 대한 기다림이 불가능한 것이고 자신이 교아의 처지임을 깨닫게 되며 집단 생활이 주는 개인적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거부감은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차라리 낫다”는 자기 포기, 시설에 산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수치심, 배고플 때 물을 마시며 느끼던 굶주림에 대한 슬픔, 자신의 출생 자체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잘못된 편견에 대한 억울한 마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편견, 무시당함, 속내를 숨김 등 3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전과자나 결혼가정 혹은 시설 수용인에 대하여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낙인이 정당한 것이든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든 피낙인자는 정신적 혹은 사회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시설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었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다. 또한 “의견이 있어도 무시당할게 뻔하니깐...”라고 하면서 집단생활에 의해 야기되는 개별성의 무시에 대해서도 억울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억울한 감정은 동일 시설에 있는 아동 및 종사자라 하더라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게 되거나 외부인⁴⁾에 대하여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친구와 어울림, 잊고 싶은 마음, 자신을 드러냄, 믿지 못함, 아쉬움, 체념, 도망치고 싶음 등 7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수용된 시설에 대한 만족감 여부에 대하여 이수근(1993)은 42.7%가 만족(만족 31.3%, 아주 만족 11.4%)해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은정(1995)은 68.6%가 만족(만족 58.2%, 매우 만족 10.4%)해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시설아동이 자신의 시설수용 사실에 대하여 만족해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수용 그 자체에 대한 만족여부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수용된 기존의 삶 속에서의 불만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속내를 드러내는 질적 연구가 아닌 양적 연구에서 수용시설에 대하여 선뜻 불만족스럽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용된 삶의 만족 여부에 대하여 초기에는 속내를 비치지 아니하였으나 점차 라포 형성이 깊어

4) 학교나 인근 마을의 또래들, 특히 설문지를 배포하는 양적 연구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집에 따라 속내를 드러내었으며, 결국은 “시설에 산다는 걸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언니가 시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하게 되었어요...”라고 울먹였으며, 도망치고 싶었다는 고백들을 감정이 격한 어조로 공통적으로 고백하였다. 도망치고 싶은 감정은 특히 시설의 이모(보육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설내 언니들로부터 구타를 당할 때가 가장 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시설을 도망치더라도 결국은 갈 곳이 없으므로 도망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친구와 어울려 놀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잊으려 춤을 추거나,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아쉬움에 눈물 젖으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눈치를 봄, 왕따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염려 등 4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은 18세까지의 아동만 수용하므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하게 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1998; 156)에 의하면 퇴소가 가까워지는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립으로서 전체 걱정거리의 41.8%가 되며, 그 다음이 시설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 23.4%, 취직기회가 없을까봐 11.3%, 살 거처가 없다는 점 1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퇴소 후에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56.4%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설아동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도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항상 눈치를 보며, 특히 취업에 대한 염려가 미래에 대한 가장 불안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일반적인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시설아동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앓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시설아동은 소외감을 스스로 느끼며 그것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원망스러움으로 바뀌어 가고 자신에 대한 서글픔으로 전변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자기 연민”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외감, 원망스러움, 외로움, 서글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 소망, 자기존재를 알리기 위한 몸부림 등 8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시설아동은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처음에는 부모나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방문해 주는 아동을 부

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삶에 대하여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도 담담한 마음이 된다. 그러다가 사춘기 이후가 되면 자신이 고아가 된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운명이라는 수용의 자세를 새로 깨닫게 된다(이양숙, 2000).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한없이 울기도 하며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슬픔에 잠기기도 하다가, 점차로 무슨 일이든지 견디어낼 거라는 긍정적인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소망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적극적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설에 산다고 같이 안 놀아 줄 때 소외감 느끼죠... 언 엄마가 없으니 따로 놀아라 라고 하면 세상에서나 혼자라는 불쌍한 생각도 들죠”라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절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디어낼 거라고 다짐했죠”라고 자기 연민의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깨달음, 목표를 향한 노력, 자신을 드러냄, 상대적 행복감 등 3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이수근의 연구(1993)에 의하면, 장래의 희망 직장에 대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44.7%,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직장 23.0%,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19.0%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적인 사고보다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곳에서 능력껏 일하겠다는 성실한 자세가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시설아동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기회를 준다면 이들이 얼마든지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역시 슬퍼하고 비판적으로 살았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커서 좋다...”라고 하면서 성숙한 인간으로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등 목표를 향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일반 가정내에서 불행하게 사는 아동에 비교되는 상대적 행복감도 느끼는 등 Maslow의 상위단계 욕구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시설아동의 삶에 대한 간호중재방안

첫째, 시설아동의 건강문제는 육체적인 건강문제에 못지 않게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가 중요하다. 육체적인 건강문제는 일반적 질병의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의료보호 혜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시설의 관행이 주는 고통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등은 약물치료로 대처하기 곤란하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에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보육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마저 지니고 있는 아동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설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나 간호사의 시설아동에 대한 대화의 기법이 연구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은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례에서처럼 고아이지만 혼자자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항상 건강했으면...”이라고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마음 깊이 염려하면서도 드러나도록 아프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어른과의 접촉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시설내에 사회복지사·보육사가 있어서 이들이 이모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보육사는 오히려 정서 장애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시설내의 이모보다는 전문 의료인 특히, 간호사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크게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료차트를 통해 인근 아동양육 시설에서 온 아동이라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대화를 하도록 그 기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아동의 자활프로그램에 간호중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설아동 중 고등학생이 되면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는 퇴소 후의 자립에 대한 걱정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보면 자립의식의 고취나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금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성병 예방이나 피임과 같은 내용 이외에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건강증진 내용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자활프로그램에 예방적 건강에 대한 간호중재의 내용을 포함하여 퇴소를 앞 둔 시설아동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도 절실히 요망되며, 또한 아직 퇴소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저학년 아동들에게도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교육하는 간호중재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넷째, 시설아동에 대한 지지적 간호중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은 수치심, 죽고 싶은 마음, 나 혼자라는 고

독감, 출생에 대한 의구심,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분노와 억울감, 모든 것을 잊고 싶은 체념감, 가족에 대한 긴 기다림 등으로 정서적 공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돈만 많이 버는 직장보다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인생관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정신적 건강문제를 다룰 지지적 간호중재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양육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살아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그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술하여 그 의미 구조를 밝힘으로써 이들에 대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질적 연구설계인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3곳의 아동양육 시설에 수용된 고등학생 아동으로서,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은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면담과 비형식적인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1회의 면담에 걸린 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 횟수는 7~9회이었다. 면담 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은 Giorgi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첫째, 시설관행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의 의미가 있다. 즉, 갑작적인 시설관행에 대한 고통스러움, 매 맞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 기다림의 고통스러움 등의 의미가 있다.

둘째,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거부감의 의미가 있다. 즉, 자신에 대한 포기, 수치심, 굶주림에 대한 슬픔, 출생에 대한 의구심 등의 의미가 있다.

셋째, 잘못된 편견에 대한 억울한 마음의 의미가 있다. 즉, 무시당함, 속내를 숨김 등의 의미가 있다.

넷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의미가 있다. 즉, 잊고 싶은 마음, 친구와 어울림, 자신을 드러냄, 믿지 못함, 아쉬움, 후회, 도망치고 싶음, 눈치를 봄 등의 의미가 있다.

다섯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가 있다. 즉, 왕따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염려, 소외감, 서글픔 등의 의미가 있다.

여섯째, 자기 연민의 의미가 있다. 즉,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 소망,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몸부림, 깨달음 등의 의미가 있다.

일곱째, 미래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있다. 즉, 목표를 향한 노력, 자신을 드러냄, 상대적 행복감 등의 의미가 있다.

이상의 의미들을 통해 볼 때, 시설아동은 아동양육 시설이

라는 제한된 특수가정에 살면서 시설의 강압적인 제한이 주는 정신적 고통과 시설아동이라는 수치심과 자기 거부감을 갖고 있으나 차츰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 보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갈등의 삶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들의 삶 속에 건강에 대한 관심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시설아동의 잠재적인 건강 부조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지지적 간호중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에 예방적 간호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과 접촉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대화기법에 관하여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동좌 (1992). 시설아의 일상생활세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 임유경 (1997). 비인가 시설보호의 실태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7.
- 김용택 (199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개혁의 과제와 전망. 한국아동복지편람(상).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103.
- 김은정 (1995). 시설보호아동의 생활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응석 외 (1995).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23. 179-235.
- 김진수 (1990).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과 내외 통제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태 (1995). 시설보호 아동의 생활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용 (1994).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의 개선방향. 아동복지학, 2.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현용, 윤현숙, 노혜련, 김연옥, 최균, 이배근 (1997). 현대사회와 아동-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서울: 소화.
- 노태화 (1974). 지능 및 장래 생활목표를 중심으로 본 시설보호아동의 발달적 특성.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몽테뉴, 박맹호 역 (1979). 삶과 사랑의 지혜. 서울: 회현사.
- 박태영 (1991). 육아시설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7호, 73-74.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 (1995). 시설아동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시설아동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에 겐자부로 (1996). 상처를 딛고 사랑을 되찾은 나의 가족. 서울: 고려원.
- 유미숙 (1980). 보호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애 (1999).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정신건강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은진 (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학업성취 및 지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삼미 (1998).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아동의 자립성과 사회 적응력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한 (1982). 시설아동의 성격 및 창의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근 (1993). 수용시설 원아들의 자립의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숙 (2000).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희 (1975). 시설수용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1988). 육아시설 아동의 자립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1989). 육아시설 아동의 성격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지도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 장병립 (1982). 아동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장인협 (1997).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348.
- 조결자 외 (1998). 가족중심의 아동간호학(I). 현문사. 39.
- 주정일 (1999). 학력전 교육의 필요성 진단. 대한가정학회지, 제10권 2호, 701-708.
- 최일경 (1996).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한국복지연구원 (2000). 한국사회복지연감(2000). 205-208.
- Beck, C. T. (1994). Phenomenology : its use in nursing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31(6), 499-510.
- Belsky J., & Cassidy J. (1994).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Development through life : a handbook for clinicians. Oxford :

-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ohn (1965).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2nd ed.) : Middlesex, England : Penguin Books. 165.
- Cavanagh, Elyn Elizabeth (1999). Maintaining a childhood: A phenomenologic study of family experiences providing home care for chronically ill, technology-dependent children. a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ashington.
- Gilkerson, L. (1990). Understanding institutional functioning style. *Infant Child*, 2, 22-30.
- Giogi, Amadeo.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 Duquesne University Press.
- Koch, T. (1995). Interpretive approaches in nursing research : the influence of Husserl and Heidegg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 827-836.
- Lambert, Sharon Folasade Marie (1999).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Linkages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a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13.
- Leathers, Sonya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a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Chicago.
- Munhall, P., Oiler, C. (1986). Nursing research : A qualitative perspective, Norwalk CT: Appleton-Century-Crofts.
- Parse, R. et al. (1985). Nursing Research- Qualitative Methods. Bowie, Maryland: Brady Communication Company.
- Piece, Susan Louise (1999). The role of fathers and men in th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 a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Minnesota.
- Ray M. A. (1998). A phenomenologic study of the interface of caring and technology in intermediate care ; toward a reflexive ethics for clinical practice. *Holistic nursing practice*, 12(4), 69-77.
- Rosenthal, Robert J. (1999). Young children's representation of self and parents: Are they related to experiences with mothers and fathers?(attachment). a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utter (1995).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concepts :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549-571.
- Sonenstein, F., and C. Calhoun (1990). Determinants of child support : A pilot of absent parents. *Contemporary Policy Issues*, 8, 75-94.
- Wolf P. H., Dawit Y., & Zere B. (1995). The solomuna orphanage : a historical survey. *Social Science Medicine*, 40(8), 1133-1139.
- Ziv, Margalit (1999). The role of desire in children's theory of mind. a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bstract -
- Key concept : Children under the Institutional Care, Children's Living

A Phenomenologic Study on the Children's Living under the Institutional Care

Kim, Kwuy Bur · Kim, Me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knowledge about the sources and meanings of the children's living who is under the care of welfare institution.

Participants were high school girls in Kwangju who offered unstructured description of their experience through interviews. The research was performed from March 2001 to September 2001.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ong Kang College.

The results, analyzed and interpreted according to Gorgi's method of phenomenology, describe the structure of the phenomenon "living experience of the children under the institution care" with a relational perspective.

The analysis revealed seven core themes :

(1) anguish of heart against custom of institution, (2) resistance against their livelihood, (3) mortification on the distorted prejudice, (4) desire to escape, (5) fearfulness for the unreliable future, (6) self-pity, (7) challenge to the future.

The foregoing argument suggest that children under the institutional care be supported by more mental health intervention and nurses be disciplined by supportive conversation technique.